

第4次

韓日家政學 심포지움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

日時：1987. 7.27~30

場所：日本大學會館 東京

主催：(社)日本家政學會

後援：日本學術會議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

中央大學校 家政大學
教授 尹 瑞 石

<목 차>
I. 생활문화 형성의 배경과 발전 II.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학문명이 가속적으로 고도화됨에 따라서 산업이 대형기업으로 확대되고 전문기업으로 심화하면서 일상생활을 매우 편리하게 관리하고 기능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생활의 자재들은 대부분이 규격화되어 골라 쓰기에 간편하고, 음식이나 의류는 첨단유행이 앞을 다투어 산업화 시판화되었으며, 그 종류에서도 눈부실 정도로 다양해져서 이제 참으로 가사관리의 번거로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전래생활 규범이나 사물에 대한 가치여부는 돌이켜 볼 틈도 없이 지나치고 가정이나 사회의 인간관계는 급격하게 밀려드는 정보의 더미속에서 정서를 잃은 채 긴장과 경쟁에 대처해야 할 형편이며, 생활 pattern에서는 개성을 잃을 정도로 획일적인 정보공세속에서 배로는 회의와 갈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이같은 갈등이 물론 문화의 수정과 전파, 창조를 낳기 위한 태동이고 진동이라 생각하며, 또한 비단 오늘날 뿐 아니라 지난날에도 무수히 반복되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통후의 창조가 성숙한 결실을 맺으려면 건강한 뿌리가 있고 정성스러운 손질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전래되어 오는 문화의 깊은 역사를 뿌리에 두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바른 문화인식이 정성스러운 손질이 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제와 내일을 잇는 교량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논제도 이러한 의미에서 선정된 것으로 짐작하면서 생활문화 형성의 배경,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이 두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가정학자의 입장에서 되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놓고 말씀드리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몇가지의 문제를 여러분의 토론장에 같이 내놓고자 합니다.

I. 생활문화 형성의 배경과 변천

먼저 우리들의 생활문화의 실상과 여기에 내재하는 의미를 인식하고자 생활문화 형성의 배경과 변천의 과정을 살피고자 합니다.

「문화(Culture)」란 용어에 대하여 여러 학자가 여러가지로 정의하였습니다. 그중 문화인류학의 태두인 영국의 Edward Tyler는 “문화는 인식, 신앙, 예술, 법률, 풍습 그외에도 인간이 사회의 성원으로서는 획득한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한 복합적인 전체이다”고 정의하였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C. Kluckhohn은 “문화는 후천적·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외면적·내면적 생활양식 모두이며 (System of explicit and implicit designs for living), 집단의 전원이 또한 특정한 Member에 의하여 공유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C. Wissler는 “문화는 인간이 학습에 의하여 얻는 일

체의 활동이다.” 라고 말하여 문화는 인간만이 갖는 것, 문화는 인간임을 특징지우는 것임을 확실하게 하였습니다. 대체로 인류학자는 문화를 인간의 생활양식으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은 인간이 생존하고 있다는 대전제 아래에서 이 생존을 지속하기 위해서 먹고 입고 사는 행위입니다. 佐藤其次郎 교수는 「生活文化と土地柄」에서 “인간이 빵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빵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표현하였듯이 사람은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활동을 계속하는데 의·식·주의 기본 행위가 필요하며, 의·식·주 행위를 수행할 물자를 구하고 도구를 제작하는 일등을 해야 하며 이러한 행위가 즉 생활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을 이루는 것이 식량을 얻는 것이라 합니다. 인간은 장구한 역경을 수렵과 채집에서 식량을 얻어오는 생활을 하다가 도구의 제작기술이 진전되고 식량을 생산하게 되었을 때 특히 근채류 재배에서 곡류 재배로 옮겨졌을 때 인간의 생활은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 사람들은 농사일에 축력을 동원하고 농지의 확장과 농구의 개발, 관개수리기술등을 발전시켜 식량을 증산하여 보다 풍요롭게 생활하고자 힘과 지혜를 동원하였으며, 근일에는 비행기로 씨를 뿌리고, 기계로 농지를 갈고 수확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이렇게 식량생산을 진전하는 한편으로 조리 가공법을 위시하여 주방의 설비·식기·상차림등에서 여러 양식의 형성과 변모를 거듭하였으며 또한 풍요를 기원하는 생업의례, 삶의 평안을 축원하는 통과의례등이 규범화되었는데, 이러한 행동 유형은 인간이 삶의 추구와 애환을 거듭한 내면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생활이 이렇게 진전되는 한편으로 사람들은 복식이나 주거생활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 외면적·내면적 요소의 형성과 변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우리의 의복생활은 옷을 입지 않던 태초의 긴 생활을 거쳐 지금부터 10만~5만년전 네번째의 빙하기를 당하여 추위를 방어하고자 식량으로 하려고 잡은 짐승의 모피를 몸에 두르기 시작하였는데, 도구가 진전되면서 모피옷을 제작하게 되고 이어서 신석기시대에 이르러 농업생활이 정착할 시기에

이러려 섬유류가 등장하였으며, 오늘날에는 자연섬유에서 다양한 합성섬유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옷의 유형은 장식으로 걸치면 선 상태의 조형에서 시작된 Design 이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복식유형으로 까지 진전하였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집은 동굴주거·수혈주거에서 지상주거로 진전하였으며, 역대의 사회배경에서 각 고장의 주거는 설계가 다양해지고 치장법이 격조를 이루는 등 구조적인 발달을 극대화하면서 오늘날에는 공동주택유형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주거는 가족생활의 공동현장으로서 “집”이라 할 때에는 단순히 거처를 일컬을 뿐 아니라 “이사람은 우리집 사람입니다”할 때처럼 그 거처에서 생활하는 가족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아가 “저집안은 참 좋은 집이래” 하고 말할 때에는 한가족의 생활학제한계를 넘어서 그 가족이 속한 집안의 가계·가문을 의미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주거는 삶의 터전으로서 삶의 주체와 연계된 많은 역사를 포용하면서 공간구조의 변천을 거쳐 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장구한 역사를 거쳐서 생활양식이나 생활기술을 엮어 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배우고 익혀 얻은 모든 것, 또는 창출하고 전승한 외양적·내면적 생활양식 모든 것이 생활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의 구성, 어린이의 양육, 의·식·주생활등을 엮어내는 여러가지 행동양식과 사물·관습 이런 것들에 내재하는 생각과 태도등이 복합되어 생활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또한 의·식·주·기타 생활양식은 각각 고유한 유형을 형성하고, 자율적으로 발전하여 옵니다만, 한편으로 서로가 깊은 연계성 아래 한 체계를 이루면서 통합된 전체로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은 생존을 지속하는데 절대적인 기본 필수 행위이므로 생활을 엮어오는 과정에서 형성된 생활문화는 인류의 다른 모든 문화의 기층을 이룹니다. 그리고 각 민족이나 어느 지역의 문화에는 특히 그 곳의 생활인들이 그 곳의 자연과 상호교섭하면서 순응할 것과 도전할 것을 판별하여 대처하고, 역대의 사회환경에서 타당치 않은 것을 수정하고 새로운 것, 보다 이상적인 것을 받아들여 종합 또는 동화시켜 새로운 유형을 창출하기도

하였읍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한 맥락이 전통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현장은 지표이며 지표는 고장에 따라서 토양, 강우량 기온등 여러 상황이 각기 다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살고 있는 고장의 특성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나 의류, 주거자재등이 각기 달랐으며, 한편 대처해야 할 방식도 다르게 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실태에서 세계 여러 곳은 각기 다른 문화유형을 전개하였으며, 여기에서 지역문화·민족문화등의 특성이 형성되었습니다. 한 두 예를 들면, 주요 식량의 세계적인 분포를 근세과학이 생활에 반영되기 이전시대(15세기경)로 거슬러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石毛直道, 世界の 食事文化), 대체로 근채문화·잡곡문화·맥류문화·쌀문화로 4대 구분된다 합니다. 남부 America의 습윤열대지역이나 태평양의 여러 섬지역은 근채류가 주요식량이었고 India 동남부의 고원지대와 Africa의 나무가 없는 대초원지대와 같은 반건조지역은 피·기장·수수와 같은 잡곡을 상용하였으며, 인도의 서부에서 티벳을 거쳐 Europe 지대는 맥류문화권으로, 동남 Asia 중국남부·한국·일본 등 온대몬순지역은 쌀문화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같은 중국에서도 대체로 강우량이 1,000 mm 선을 중심으로 하여 강우량이 그 이하인 북부는 고대에서는 조·수수와 같은 잡곡을 주로 경작하다가 전한(前漢) 말경에서역으로부터 장건(張騫)에 의하여 밀이 들어온 이후로는 일반적으로 밀농사가 보급되었던 반면에, 강우량이 많은 남부는 일찍부터 쌀농사를 정착시켰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북위 40°이북은 잡곡농사에 좋았으므로 기장으로 만든 떡(황해도도의 노퇴), 메밀국수 요리인 냉면과 같은 명물음식을 개발하였읍니다만, 남부는 벼농사의 적지로서 B.C 7~8세기경에 일부에 있었던 벼농사가 파급되면서 정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장에 따라서 산출할 수 있는 곡물이 달랐으므로 여기에 맞추어 상용하는 곡물요리법도 각각 다르게 개발되었습니다. 동·서양의 식문화의 한 특성이 서양의 빵, 동양의 밥으로 2대 구분된 것도 기본산출 식량의 특성에 맞추어서 창출한 결과입니다. 또한 대체로 쌀문화권, 특히 쌀경작의 역사가 깊은 쌀경작권안에서는

멥쌀경작이 많고 찰쌀경작이 적은 관계로 멥쌀이 상용식량으로 쓰이고 찰쌀이 의례용·양주용등으로 쓰이는 것이 상례이지만, 타이·라오스 두나라는 쌀의 전산출량의 90%가 찰쌀이므로 찰쌀이 상용으로 쓰이고 멥쌀은 고급음식으로 취급되고 있다하며, 멥쌀밥을 상용한다는 사실을 크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渡邊忠世씨는 아세아「稻作の系譜」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로 밥을 지을 때에도 Indica종 재배지역에서는 쌀이 끓으면 물을 따라 버리고 뜸을 들여서 지은 끈기가 없는 밥을 선호하는가 하면, 일본, 한국처럼 Japonica종에 익숙한 사람들은 되도록 수분을 증발시키지 않고 뜸을 잘 들여서 윤기가 흐르고 끈기있는 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4계절의 구분이 분명한 일본이나 한국인의 생활은 의복·음식·주거생활 모두에서 겨울옷, 여름옷, 봄·가을옷등을 구분지어 갈아입고, 음식은 계절감각을 음미하느라 절식·시식의 관습을 형성하고 주거는 더위와 추위를 대처할 수 있는 이중성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습도가 20%이하로까지 내려갈 정도로 건조하고, 한낮의 더위가 50°C로까지 오르는 강렬한 태양열 아래에서 생활하는 아랍 사막인은 사철을 머리를 타아반으로 감싸 가리고 몸에는 모직으로 된 부루누우스를 빈틈없이 덮어 두름으로서 강렬한 열기를 방어하고 땀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사람이 지표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의 제약조건에 직면하였을 때 순응과 대응의 예지를 동원하여 만든 문화입니다. 즉 문화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 유리하도록 형성하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문화를 갖은 인간은 자연이 갖는 의미를 변경하기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작물의 품종이 개량되고 재배기술이 향상되어 이제 자연의 기후 한계가 변동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가 이루어지고 고층건물이 증대하여 자연의 경관도 변형되었으며, 생활문화의 진보와 인간, 자연 사이의 교섭은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생활에도 긴 인류사에서 형성된 전래문화는 인간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문화도 민족문화의 근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때 실혹 그 생활문화의 외양적 유형이 과학문명 아래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

라 할지라도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의미와 역사성은 배제하지 말고 인식하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한편 역대의 사회환경에서 종교·정치·경제·사상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이 생활문화의 전파와 교류에 직접 동기로 작용하여 문화유형의 변모와 발전과정에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고기구는 한국의 식생활문화에서 큰 비중을 갖는 명물음식의 하나이지만, 이 고기구이도 역대의 정치적·종교적 배경에서 몇고비의 기복을 겪어 온 것입니다. 한반도의 상고시대는 수렵이 능하고 가축을 잘 키웠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고기음식이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부족국가 시대에서 삼국시대까지의 한시기는 상무적(尙武的)인 시대적인 환경에 있었으므로 고기요리가 숭상되어 계속적으로 발달하였습니다. 신라·고려시대에 이르면 불교를 숭상하는 환경에서 한 때 침체하였다가 고려후기에 이르러 불교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한편 육식민족인 원(元)과 교섭이 빈번하여지면서 고기요리가 급격하게 복원 발달되어 명문화 되었습니다. 이어서 유교의 이념을 정치의 기본으로 한 조선왕조에 이르러 가부장권 대가족제도 아래에서 빈객을 위한 각 가문의 음식솜씨가 정치권으로까지 반영됨에 이르러 고기요리 솜씨는 더욱 섬세화하였으며, 근일의 산업화 경제환경에 이르러서는 고기요리가 가정요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전문요식업으로 급격하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한편 신라·고려를 통한 숭불환경에서 고기음식은 쇠퇴하였지만 반면에 과자와 떡 및 차를 즐기는 풍습이 유행하여 국가의 행사나 잔치가 있을 때면 진다례(進茶禮)를 먼저 한 다음에 잔치상으로 옮겼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수려한 고려청자의 다기·청자의 물병등이 오늘날까지 문화유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김치가 채소의 열장성품으로서 매우 과학적인 뿐 아니라 그 맛을 일본에서도 근일에 이르러 매우 선호한다합니다만, 이런 김치문화가 형성된 것은 한반도에서 고추가 들어온 이후부터이며, 고추의 유입경로와 계기에 대하여는 임직웨란이 한 배경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추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마치 일본의 나라ツケ·타와안

과 같은 절임류가 상고시대부터 쓰이다가 신라·고려의 숭불환경에서 나박김치·동치미류가 개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은 나라ツ케는 누룩에 의한 양조법을 일본으로 전수한 백제사람 人香(須須保理)이 술빚기와 함께 일본으로 전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한국에 스シ와 天프라가 보급된 것은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게 된 이후의 일입니다. 일일이 예거할 틈이 없었습니다만 이와같이 역대의 정치·경제 환경에서 사람의 왕래를 통하여 또는 상역을 통하여 전파되고 수용된 문화가 각 민족간의 상호교류·수용에 의해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도 벼농사의 전파는 한국이나 일본의 식문화 형성의 주요항목에 틀림없습니다. 한국의 벼농사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것인데 유입경유에 대해서는 북방설 남방설의 양론이 있고 그 시기는 유물의 발견에 따라 현재는 BC 7~8세기경으로 까지 생각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벼농사 유입경유에서는 한반도로부터 온 이주집단에 의한 설, 중국남부로부터의 직접유입설 혹은 기타 동남아시아로부터의 해로경유설등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하간에 일본도 한국도 벼농사국으로 정착하면서부터 쌀이나 기타 곡식으로 지은 밥을 주식으로 하고, 밥을 먹기에 적합한 음식을 반찬으로 구성하는 주·부식 분리형의 일상식을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같은 쌀문화권 안에서도 이토록 식생활의 기본유형이 같은 고장이 다른 데에는 없는 줄 압니다. 식문화유형의 이같은 동질성은 내면적 정신문화 요소의 동질성으로 까지 확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쌀농사는 기온이 순조롭고 적기에 필요량만큼의 강우량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을 구비한다는 일이 근대과학 기술이 농업기술로 반영되기 이전에는 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비가 적기에 올 수 있도록 하늘과 신에게 빌며 겸허하였고, 모를 내는 때, 벼를 거두어 들이는 때에는 마을이 함께 모여 상호부조아래 공동작업을 하는 관습등은 생활문화의 내면적인 요소입니다.

문화의 전파 교류는 다른나라 사이에서 뿐 아니라 같은 나라의 지역사이에서도 현저하게 반복된 사실입니다. 한국은 작은 국토입니다만 산맥을 사이에 두고 기후구가 다양하여 생활문화의 향토성

이 깊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멀리는 상고시대 삼국이 각각 전개한 문화가 신라통일을 계기로 크게 상호교류할 수 있었고, 가까이로는 비극이었으나 다만 6·25동란으로 각 고장의 문화가 한고장으로 모여 상호교환하면서 상당히 두터운 종합과 복합 현상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대체로 생활문화는 한 사회의 계층사이에 구분이 지어져 읍니다만 정치적인 변혁이 계층사이의 문화를 교환하여 융합할 수 있게 한 예도 국민족생활에는 많은 예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같이 특히 사회환경은 문화의 전파·교류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교류전파과정에서 새롭게 받아들인 문화는 기존문화에 종합되거나 절충되고 때로는 용유되어 새로운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한 고장의 생활문화에는 긴 역사과정에서 여러 갈래의 다른 문화계통이 수용되어 누적되고 복합되어 있는 실체이므로 한 지역이나 민족문화의 각 시대적인 양식은 그 시대적인 특성의 구체적인 상징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문화의 시대구분을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여러 갈래의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사람이 변화와 진보·이상을 추구하는 속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수용한 문화가 보다 진보된 것이고 보다 새롭고 보다 우위(優位)에 있을 경우가 많습니. 따라서 수용한 문화에서 새로운 결실을 맺어야 했는데 새로운 문화수용의 결실은 그것을 수용한 사람들의 관습·생활태도 나아가 전래 전통등에서 기초지위 집니다. 따라서 수용한 사람들의 창조 의식과 기존문화의 성격에 따라 수용한 문화를 역사적 소산으로서 통합하여 또 하나의 양식으로 성립하는데 작용됩니다.

이렇게 사회환경은 문화의 전파·교류에서 깊이 작용하고, 문화의 전파는 한지역 한민족의 생활문화의 변질이나 발전에 외부적인 요인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서 문화인류학에서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전파론이 중추적인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문화전파론에서 하나는 영국의 Elliot Smith가 세계의 문화는 Egypt 문명을 기원으로 하여 전파된 것이라고 제창한 바 있으나 이것은 극단론이라 하여 곧 비판되었습니다.

다. 또 하나는 F. Ratzel, L. Frobenius 등의 학설로서 세계 여러 곳의 문화를 몇개의 문화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화권은 어떠한 문화요소가 어떻게 전파되어 형성된 것이냐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문화도설(文化圖說)이라 합니다. 그러나 역시 도식적(圖式的)이라고 비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의 여부는 고사하고 문화의 형성이나 특성에서 전파는 중심적 요소의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할때 우리는 생활문화에 싸여져 있는 문화계통을 분명하게 하고 복합되어져 있는 문화계통을 해석하고 판정하여서, 형성되어 있는 문화양식의 본질을 규정하는 일이 내일을 위한 문화창조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우기 근일에는 인간의 교류가 빈번하고 정보의 전파전달, 교류 등이 발달하여 문화전파 추세가 밀물처럼 밀려오는 시대입니다. 이런 문화뿌리가 든든하여야 접목한 결실이 하나의 통합체로서 좋게 결실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화 되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의미에서 전래생활문화를 박물관행정에 밀어 제치지 말고 새로운 것의 든든한 기저가 되도록 전승과 창조의 예지를 동원하면 좋겠습니다.

II.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생활문화의 전승은 옛부터 이어져 오는 전래문화를 이어받아 다시 전하는 일을 말하며, 생활문화의 창조는 보다 이상적인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는 일이며 전승과 창조는 분리되지 않고 함께 흐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각 민족의 전래문화는 그 민족의 지난날의 역사적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그 민족만이 창출한 고유한 모습과 기능이 있으며 고유한 방식이 발현해 주었던 효과를 담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민족생활의 지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래문화는 각 시대의 환경속에서 선별적인 전승을 거친 것이고 여러 세대를 통하여 확인된 것이어서 모두 그 의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날의 사정에 꼭 적합한 수단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전래문화를 오늘의 환경, 나아가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관점으로 평가하고 다시 확인하여 모습에서 부적합한 것, 기능에서 부족한 것 등을 선별하여 새로운 유행을 창조해야 할 의미와 필요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사람은 모체로부터 출생할 때 가족이란 한 집단으로 옮겨졌으며, 성장해 갈수록 사회화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집단의 성원으로서 이미 전래되고 있는 공유문화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므로 전래문화의 온고성(溫古性)은 인성의 정서적인 안정에 기능합니다. 극히 작은 예입니다만, 바삐 생활하고 있는 Businessman들이 접객과 상담·정치적인 교섭을 하느라 고급 Restaurant에서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집에 돌아와서 김치, 된장찌개로 밥을 한두숟갈 먹었을 때 심성이 편안해지는 따위의 사례는 아내의 손질이 간 음식이 갖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성장하면서 익혀온 우리 음식이 주는 정서적 기능이 우선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어머니의 손맛”을 거친 전래식문화의 한 기능입니다. 한국사람은 낯선 외국의 식당에서 김치를 즐겨 먹는 사람을 대하면 같은 집단의 성원으로서 친화감이 솟구칩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habitat를 공유하는 조직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공유하게 된 전래문화의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에서 인간의 연계성과 친화성이 교양됩니다.

1986년에 한국가정의 일상식 관리의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만, 예견했던 것 보다 훨씬 전래양식을 이어 실시하는 가정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았습니다. 먼저 도시의 가정에서는 아침식사가 빵으로 대체된 비율이 많을 줄 예견하였는데, 조사 결과로는 하루 세끼를 모두 밥상차림으로 식사하는 가정이 72%였습니다. 결과를 보면서 문화속에는 안전하고 재확인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특히 생명과 건강유지에 기본요소인 일상식의 구조는 어디에서나 이같은 특성을 갖고 있을 것임을 아울러 생각하면서 영양학의 연구에서 민족영양학이란 한 영역이 있을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일상식 양식인 밥상차림인 주·부식의 구성유형은 쌀이 증산되던 삼국시대 후기경에 형성되어 정착해 옵니다만, 그 이전에는 공동체 사회환경 아래에서 지금의 Buffet와 같은 차림이 상

용되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한 상고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는 입식차림(상중입니다만)의 유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 유형이 오늘날까지도 잔치음식 유형으로 전승되어 있고 제상차림으로 전승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상차림은 일상식과 의례상의 구조가 이원적으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치상은 꺾식화되어 있는 반면 제사상은 입식 그대로 이어져 있으며, 특히 제사는 주·부식 분리 이전의 차림에다 주·부식 양식의 일상식 차림까지 복합된 유형으로서 이어져 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외면적 양식보다는 내면적인 본질을 중심한 새로운 model이 다시 창조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한국 주거의 난방은 온돌로 특정지워지고 있습니다만, 1960년대 이후 Apartment House가 급격하게 확대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난방수단이 Central heating으로 전환되면서 모두 입식으로만 설계되었으나 모두 여기에 적용하기 불편하였으므로 근일에는 난방방식을 Central heating으로 하되 바닥과 공기 양면을 데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한옥이 빌딩으로 외양을 변모하면서도 온돌의 기능은 계속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모 유형은 전승과 창조의 한 model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Raph Linton은 「문화와 인성」에서 “문화의 특성은 우연이 아니며, 문화에는 안전하고 무엇이든지 재확인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문화의 역사가 이어져 새로운 전개에 반영되는 환경이라면 인성에서 정서적인 욕구가 충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문화의 전승은 가족·가정에서의 전승이 근저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족제도는 주지하는 바 대로 조선왕조 중기 이후로 대가족제도 생활이 엄격하였으므로 여러 세대(世代)가 함께 공주공식(共住共食)하였으며, 이러한 가정현상은 전래문화에 접하고 행동하고 경험하면서 그 적부를 인식할 수 있는 과정이 많았고 이런 환경에서 어린이가 성장할 때 그 가정은 전인적인 인성형성의 기능을 하고 문화의 전승기능을 하며, 한편 전래문화의 판별을 유인할 수 있는 기능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촉

진에서 도시화가 따르면서 핵가족화되어 어린이의 가정문화 환경은 문화의 역사가 이어져 새로운 전개에 반영할 수 있는 매체로서 접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역할은 크게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Blank 를 보완하는데 앞으로 가정은 무엇인가 방안을 가적야 하겠으며 아울러 학교교육, 지역사회도 함께 공동방안을 강구해야 할 줄 압니다. 우선은 전통문화의 실상을 담은 도구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이해하도록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이나 마을,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 핵심이 전승되면서 사회성원들은 공통의 이해기반을 갖출 수 있고 나아가 그 사회는 구성원들이 계속 교체되더라도 뿌리가 든든한 집단으로 존속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의 형성과정은 새로운 기술, 통찰, 행동규칙등을 학습하여 획득한 과정이며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적 기여가 사회문화로 흡수, 확대되어 옵니다. 현세를 풍미하는 농업기술의 연구업적, 생명체 연구의 업적 등은 모두 미래의 생활문화에 흡수될 요소들입니다. Blach 는 “어제의 유토피아는 내일의 현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돌도끼로 땅을 개간하던 옛날을 잠시 생각하고 오늘날의 고도문명을 생각할 때 인간의 진보추구, 이상추구의 욕망은 참으로 위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인간 진보추구가 오늘의 발전요소 등을 잘 수용하여 사회문화로 통합구축하므로써 어제의 이상향이 내일에서 제 현상으로 구현시킬 수 있도록 가정, 교육, 사회가 공동으로 방향과 방안을 탐색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대로 토양과 시비의 적합한 조정아래 전래 근저문화에다 순리로 접속할 수 있게 하여야겠는데, 여기에서는 문화의 전승이 유형의 복원만을 의미하기보다 문화의 내포되어있는 본질을 계승하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교육·사회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져야 겠다고 생각하면서 감히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먼저 문화의 실상을 알 수 있도록 가정·학교·사회는 여러곳의 전래문화에 접촉할 [기회와 체험

할 기회를 갖게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게 하고, 전래문화양식을 검증(驗證)과 논증(論證)으로 평가할 기회를 갖게 하면 좋겠습니다.

전래문화 연구를 할 때에는, 의·식·주생활 양식 사이의 연계성을 이해하여 총합된 구성체로서 총합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여기에 관계한 인간과 자연의 교섭관계를 사회환경과 인간관계로 인식하여 비교하고 여러곳의 문화를 비교 연구방법으로 추진하여 역사적 의미와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현존문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내일을 위한 요구를 조사하여 내일의 문화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이 비인간화의 우려를 극복하여 전인적이고 정서적인 매력있는 문화창조에 통합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이 필요하겠으며, 세계적으로 식량을 위시한 자원배분의 모순등이 해소될 수 있는 문화창달을 한 과제로 생각할 수 있는 이해를 기대합니다.

참 고 문 헌

- 佐藤甚次郎, 「生活文化と土地柄」, 大明堂.
 祖父江孝男, 「文化人類學入門」, 中公新書.
 梅棹忠天外 8人, 「社會と文化」, 朝日新聞社.
 石毛直道, 「世界の食事文化」, ドメス出版
 小川安朗, 「民族服飾の生態」, 東書選書.
 渡邊忠世, 「アジア稻作の系譜」, 法政大學.
 韓國文化史大系—風俗藝術史. 高大民族文化研究所.
 김연옥, 「한국의 기후와 풍토」, 梨大出版社.
 Ralph Linton The Cultural Background of
 Personality.
 全京秀譯, 「문화와 人性」, 玄音社.
 李大雄, 「文化的 概念」, 一志社.
 J. Bronowski, A sense of the Future 임경순역,
 「과학과 인간의 미래」, 平旦出版社.
 韓國精神文化研究所, 叢書 82-6 「傳統生活樣式의
 研究」, 叢書 82-7 「韓國社會의 規範文化」
 尹瑞石, 「增補 韓國食生活史研究」, 新光出版社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중앙대학교 가정대학

부교수 이 현 옥

< 목 차 >

1.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2. 현대 가정생활 문화의 특성과 교육의 역할

1.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문화 속에서 태어나고 그 문화를 배우면서 성장하고 문화를 변용, 발전시켜가면서 살아가게 된다. 또한 인간은 문화와 역사창조의 주인공으로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면 과연 생활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해온 인류학자들은 조상으로부터 학습을 통하여 전승받은 생활양식을 문화라 보고 있다. 즉 이러한 의미에서 본 문화는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활의 방법으로서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거기에 적응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이룩한 삶의 지혜이므로 그 지역의 환경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사회가 공유하는 생활양식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의 특성은 아래의 두가지 내용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문화가 가지는 특수성이다. 역사를 지닌 모든 사회의 문화는 그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지닌다. 주거양식, 의생활, 식생활, 가족생활로부터 만들어진 생활습관은 자연환경에 알맞게 이루어졌으므로 자연환경의 조건이 각각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는 각각 다르며 그로 인한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어떠한 특수성을 지닌 문화의 우열은 가릴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둘째는 문화의 세대간 이전이다. 문화는 여러가지 문화요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새로운 문화요소의 도입과 오랜 세월을 거쳐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전이되는 사회화의 과정으로 지속적인 변동을 겪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는 학습을 통하여 문화를 터득하고 다시 다음 세대에 이를 전하게 된다. 즉 이는 문화의 전승과 변용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게 되며 이렇게 보면 생활문화란 한 시대 특정 집단의 생활양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전통문화란 한 민족의 생활문화요소중에서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남아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의 생활양식에 깊숙히 뿌리박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이 현대의 가정생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 보기 위하여 우선 현대 사회내에서의 우리의 가정 생활의 양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현대 가정생활문화의 특성과 교육의 역할

현대의 사회는 산업화 과정의 사회이며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의 내용에 있

어서도 급격한 변모를 가져오는 한편 우리 고유의 생활 양식도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화, 민주화, 도시화, 평등화의 구조적 변화가 앞으로도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양식과는 아주 다른 생활의 외형적 변화는 우리의 생활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산업화는 전통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대립을 가져왔으며 이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과 대립의 문제는 사회변동의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생활에서의 변화내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생활문화의 주체인 가족구조면에서 살펴보면 전통사회는 가족중심의 사회로 생산이나 소비행태가 가족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농업사회에서 가족은 대가족의 형태를 이루어서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기본단위였으나 산업사회에서 가족은 구조적인 면에서나 기능적인 면에서나 최근에 크게 변화되어가고 있다. 가족이 핵가족화되면서 구조면에서 규모가 작아질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역할이나 기능이 변화되어 왔다. 또한 가족원들의 대부분의 생활은 사회에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산업화 및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를 거치면서 가족생활의 형태나 가치관, 의식의 변화를 수반하면서 가족구성원간의 내면적인 관계를 점차 변화시켜 심각한 가족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즉 부모가 성장했던 전통사회에서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자녀가 성장하고 있는 현대사회의 개방적인 가치관의 차이는 부모와 자녀간의 세대차이에서 오는 문제로 표출되기도 한다.

주생활은 자연환경적인 요인이나 가족제도와 같은 사회문화적인 환경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대가족제도는 여러 세대가 동일 주택에서 주거하게 되어 대가족을 위한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오늘의 주거양식은 서구문명의 도입이 급증하면서 사회구조적 변천과 함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주거양식에 대한 적합성이 검토 비판되어지지 못한 채 급속히 진전되어 실제의 주거공간계획, 또는 사용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현대의 주거계획에서 나타나는 획일성은 특히 대량생산을 목표로 할 때

더욱 심각하며 기능주의적인 주거환경은 단조롭고 비인간적인 환경으로 변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래의 인구증가를 고려한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주택계획에서 전통성의 추구방법은 전통주거에 대한 객관적인 특성과 광범위한 배경을 규명하여 현재의 위치에서 가치의 타당성을 고찰하는 것이다. 전통주택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다양성은 현대의 주거계획에서도 받아들여져야 하며 특히, 집합주거의 결합층의 하나인 개성의 상실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전통가구의 미적 가치는 인간적이며 자연적인 조형미를 나타내며 전통목조가구는 현대생활에 알맞게 제작되어 현대주택에 좋은 조화를 이루며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우리의 생활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적인 주거관과 공간구성 형태를 객관성을 가지고 검토하는 작업은 현재의 주거환경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다.

의생활의 양식도 물질문화의 진보에 따라서 변화되어 왔다. 각 나라의 전통적인 의생활양식은 점차로 약화되어 가는 경향이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수한 행사나 명절에는 고유한 민속의복을 입어서 전통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시대의 변천에 따라 유행이 변화하고 도덕적인 기준도 달라지며 같은 문화권 안에서도 가치관에 따라 의복규범은 다르다. 그러나 최근 교통통신의 발달은 문화적 교류의 기회를 증대시켰으며 따라서 문화의 접촉이 유행의 변화를 빠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은 교육의 기회가 증대될수록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교육수준의 향상은 소득수준을 높여 주어 유행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편 과거의 식생활은 전통양식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준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농업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춘하추동의 계절의 변화는 계절에 따른 다양한 산물을 수확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식품의 개발, 식품의 조리, 가공법의 발달등이 식생활양식의 형성과 변천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와같은 전통적인 생활습관은 전래음식으로 계승되었으

며 절식과 시식풍습을 형성하고 오랜 식생활 문화로 토착되었다.

따라서 과거에는 지역적,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독특한 식생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즉, 농업을 생업으로 하던 전통사회에서는 그에 따른 생산양식과 계절에 따른 생활주기를 갖는다. 세시풍속은 일상생활에서 계절에 맞추어 되풀이하여온 민속을 뜻하며 독특한 생활문화를 형성해왔다. 세시풍속에 나타난 생활문화는 오랫동안의 생활경험으로부터 얻은 것이므로 그 속에서 많은 교훈을 찾을 수 있고 그 장점은 현대의 생활을 더욱 풍부하게 해 줄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연환경과 인간의 힘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던 의식주생활에 더욱 많은 변화를 가져와서 가정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어 있던 의생활과 식생활도 많이 사회화되어 가공식품이나 외식산업의 발달, 기성복의 대량생산의 홍수속에서 우리의 생활은 영위되고 있다.

근래에 동서양의 문화교류가 진전되면서 서구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서양의 식생활이 소개되면서 식생활에서의 외래문화의 수용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전통음식을 발전·계승하는데에 소홀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의 식생활문화는 현사회환경에서 전통식생활 문화속에 외래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여 정통성을 확립해 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가치체계는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외래문화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모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이러한 변모는 고도의 기술혁신에 따른 생산과 소비의 대량화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과 문화유형의 획일화, 평준화, 비개성적인 인간형의 출현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모든 면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해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바탕이었던 전통적 가치를 재검토해보고, 현대화된 오늘날을 평가하고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를 전망하여 사회변동의 성격과 방향을 설정하여 우리생활에서 문화적 유산의 보존유지, 변화를

어떻게 생활면에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하여 이를 교육하는 것이 결국은 가정학자들의 사명이다.

전통은 문화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통문화는 일정한 생활집단에 의해서 계승, 전래되어온 생활양식으로 새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바탕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회환경에 적합한 전통문화의 유형을 창조하고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외래문화를 우리문화 속에 수용하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문화의 외형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선택하고 전통문화의 장점을 살려서 독자적인 문화로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정학자들이 특히 명심해야 할 사실은 역사의 진전에 따라 문화의 전통적 요소들 중에는 변화하는 것과 변하지 않고 오히려 보강되는 것, 새로운 전통으로 창조되는 것 등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상에서는 사회변동에 따른 가정의 생활양식 변화를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여러가지 사회변동 중에서 뚜렷한 변화는 교육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는 도시화 대중사회화의 현상으로부터 생활문화의 내용이 증대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전문적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교육의 기능은 개인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문화유산의 후세대에 물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다.

급격한 사회변동은 가정의 생활문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와같은 사회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의 목표나 내용, 방법에 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육적 방향은 공동체의식이 강조되었던 전통정신과 개인의 자주성을 주장하는 근대의식이 상호보완되어 새로운 인간상을 창조하도록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변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것과 이미 변화가 진행된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쉽다. 그러므로 가정학의 바람직한 교육은 전통적인 것을 가르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전달하여 새로운 역사의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하도록 기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방안으로는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가정교육 측면에서 보면 최근 평생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가정의 교육적 역할과 의의가 강조되고 있다. 가정문화는 가장 중요한 학습자 요인으로서 후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적 기능을 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폭넓은 수용은 더욱 풍부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사회의 교육화를 통하여 전체사회가 보다 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즉 학교교육에서의 교과내용은 좀 더 전통적 생활문화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젊은 세대의 교육을 위하여 전통적인 생활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참여할 때 우리의 생활은 더욱 풍부해질 것이다.

가정학은 가족의 행복과 인류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의식주, 가족생활 등 가정생활의 향상, 인간발달과 자원활용,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유지와 계승 등에 관한 연구영역도 포함된다. 그러므로 미래의 가정학은 산업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사회, 문화면의 변화를 보다 민첩하게 예측하고 첨단적인 지식으로 현대사회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에 알맞는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의 방향을 정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전통적으로 계승된 우리의 생활양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잊혀져가는 전통의 계승과 미래 생활문화를 창조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오늘날 가정학의 새로운 과제는 산업화에 의해 나타나는 사회문화면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전통문화의 뿌리를 살려서 미래사회에 요청되는 사회, 생활문화를 교육시키는 새로운 교육목표, 내용, 방법을 연구하여 참다운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데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가정학은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이제까지 형성된 생활문화를 계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진문화를 우리문화 속에 바르게 수용하여 확고한 생활문화를 확립시키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의 가정학의 교육내용에서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함께 현대의 가정생활과 전통문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가정학자는 가정학의 연구와 교육에서 가정생활이 좋은 환경에 놓일 수 있도록 개인을 교육하고 전문인으로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 문헌

1. 고병익, 현대사회와 가족
2. 권이구, "전통적 생활양식의 생태학적 측면",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3. 김경동, "공업화 과정과 한국문화의 전통적 요소의 변화와 연속성", 산업사회와 대중문화(上),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4. 김양희, "산업사회에서의 가정윤리", 국회보, 국회사무처, 1987.
5. 김종철, "현장교육과 가정문화", 가정문화연구소 개설기념 학술강연회, 중앙대학교, 1987.
6. 김주연, "산업화와 문화충격", 현대사회, 20 1985.
7. 김태현, "미래의 가족생활",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1986.
8. 모수미, "미래가정의 생활문화",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1986.
9. 박찬부, "서기 2000년대의 의생활문화",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1986.
10. 손경희 외 1인, "미래의 식생활 문화",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1986.
11. 유승국, 한국의 사회와 문화(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2. 윤서석, "식생활의 전통양식",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14. 이광규, 문화 인류학 개론, 일조각
15. 이동준, "전통적 가치관과 새가치관의 정립", 전통적 가치관과 새가치관의 정립(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16. 이명희, "의생활 환경", 가족과 환경, 교문사
17. 이영기 외 2인, "산업사회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 청소년의 생활과 산업

- 사회의 사회과 교육, 1982.
18. 이인희 외 2인, 가정학 원론, 수학사, 1982.
 19. 임동권, “세시풍속의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20. 임희섭, “산업화과정의 한국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가치체계 연구”, 산업사회와 대중문화(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21. 정영진, “식생활 환경”, 가족과 환경, 교문사.
 22. 조혜정, “전통적 경험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下),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3. 지 순, “미래주택의 방향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24권 4호, 1986.
 24. 홍형욱, “주생활 환경”, 가족과 환경, 교문사.
 25. 주남철, 한국의 사회와 문화(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를 爲한 研究

서울大學校 家政大學

副教授 李 恩 英

<目

次>

I. 研究의 必要性

III. 研究의 方法

II. 研究의 主題

IV. 研究를 위한 提言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가 갖는 意味나 重要性, 그리고 家政學이 이에 기여할 수 있는 理由와 可能性에 대하여는 이미 여러 발표자가 충분히 강조하였기 때문에 본 발표의 내용은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를 보다 바람직한 方向으로 推進시키기 위한 研究의 側面에 限定시키고자 한다.

생활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現在의 未來는 過去에 있다”는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過去와 現在와 未來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생활문화의 변화는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는 時系列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I. 研究의 必要性

이러한 연구의 結果들은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를 보다 바람직한 方向으로 이끌고 나아가기 위한 教育和 地域社會奉仕의 基礎資料로 활용될 수 있다.

總體論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文化는 人間이 自然環境과 社會環境에 맞추어 適應해나가는 수단으로 이룩한 生活樣式 전체를 일컫는다. 文化는 環境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형성되므로 生活文化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人間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에 대한 研究가 필요하다.

II. 研究의 主題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라는 커다란 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研究의 主題(research question)는 研究者의 關心과 興味에 따라 무한히 많을 것이나 本稿에서는 이들을 「무엇」의 研究, 「왜」의 研究, 그리고 「어떻게」의 研究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家政學 研究의 根本인 人間生態學的 接近(human-ecology approach) 역시 家族을 ecosystem으로 보고 家族과 環境과의 相互作用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¹⁾ 생활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家政學的 接近方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즉, 한 時點에서의 生活文化를 分析하여 家族(人間)의 慾求와 環境과의 상호 관련성을 밝힐 수 있다.

1. 무엇의 研究

또한 時代의 變化에 따른 生活文化의 變化도 연구될 수 있는데, 이는 環境의 變化가 必然적으로

「무엇」의 연구는 生活文化의 歷史的 事實을 밝히는 연구이다. 구체적인 內容으로는 衣生活文化, 食生活文化, 住生活文化, 家族生活文化등 생활의 측면에 따라 다양하게 細分化될 수 있으며, 細分化된 各側面은 또다시 時代에 따라, 地域에 따라

나될 수 있다. 예컨대, 과거 특정시기의 服飾의 形態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에 속한다. 생활문화의 내용은 광범위하고 수없이 많은 研究課題를 포함하며, 이들은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總體를 이루게 된다.

이러한 歷史的 研究은 과거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한다는 一次的 目標을 갖고 있으나, 더 나아가서는 歷史的 事實이 現在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활문화의 「왜」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게 된다.

2. 「왜」의 研究

「왜」의 연구는 생활문화가 傳承되고 創造되는 理由를 밝히고자 하는 研究이다.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가 왜 이루어지며, 이러한 行爲를 통하여 우리는 人間의 어떤 屬性을 滿足시키려 하는가?

앞에서 제시한 生活의 各側面에 대하여 各時代 各地域의 歷史的 事實을 규명하면 生活文化와 環境과의 關聯성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게 된다. 같은 時代의 文化圈間의 비교, 또는 같은 文化圈의 時代間의 비교등을 통하여 時代別, 또는 文化圈別 生活文化의 差異點과 類似性을 규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는 社會環境, 自然環境과 生活文化의 各要素와의 關聯성을 밝혀줄 것이다.

3. 「어떻게」의 研究

「어떻게」의 연구는 生活文化가 創造되며 傳承되어 온 과정의 現象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이다. 과거의 생활문화중 어느 부분이 傳承되고, 어느 부분이 創造되었으며, 傳承된 部分은 새로운 生活文化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過程을 促進 또는 저해시킨 社會的, 心理的 要因은 무엇인가? 生活文化의 부분중 傳承되지 못한 部分은 무엇이며,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친 社會環境의 要因은 무엇인가? 등의 여러가지 의문에 관한 解答를 얻고자하는 연구이다. 例로서 Anspach와 Kwon의 研究²⁾과 같이 韓國女性이 西洋服을 받아들여 입게되는 過程에서 나타나는 現象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結果들은 綜合的으로 現在의 社會環境에서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한 生活文

化는 어떤 것이며, 이를 위한 傳承과 創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未來의 생활문화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Ⅲ. 研究의 方法

研究의 主題가 多樣한 만큼 活用될 수 있는 연구의 方法도 다양해서 歷史的 研究(historical research), 記述的 研究(descriptive research), 實驗的 研究(experimental research), 事例研究(case study)등 거의 모든 研究方法이 活用될 수 있다.

1. 歷史的 研究

歷史的 研究은 歷史的 事實의 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基礎的 研究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生活의 흔적들, 특히 衣服, 食品등은 實物의 保存이 어렵기 때문에 資料를 二次的 出處(secondary source)로부터 구하게 된다. 따라서 文獻, 美術作品, 壁畫등이 자료의 출처로 사용되며, 이들의 妥當性이 歷史的 研究의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McBreen³⁾은 歷史的 研究의 段階로 資料蒐集의 對象選定, 출처의 탐색, 비판, 종합해석의 4단계를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資料의 出處選擇에 있어서 一次的 出處(primary source)로부터 얻는 자료의 重要性和, 이것이 어려울 경우 자료의 妥當性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重要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證據의 확보와 함께 證據의 信憑性에 대한 批判도 중요시하였다. 批判은 外的 批判과 內的 批判의 두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外的 批判은 資料의 出處의 妥當性을 말하며 內的 批判은 出處에 포함되어 있는 資料의 內容에 대한 批判을 말한다.

2. 記述的 研究

생활문화와 環境變因과의 關連성과 같이 變因사이의 關連성을 記述的으로 연구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의복과 關連한 環境변인과의 相關研究, 의복과 다른 文化的 特성과의 상관연구등 많은 연구가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Jasper⁶⁾는 服飾史 研究에 있어서 進化論(evolutionary theory) 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服飾의 變化를 社會的, 文化的 脈絡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社會環境變因과 服飾과의 관련성에 대한 記述的 研究의 필요성을 말한다.

3. 實驗的 研究

실험적 연구는 變因의 造作에 의한 實驗處置(experimental treatment)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時期가 現在로 제한되게 된다. 따라서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라는 主題에는 實驗的 研究의 活用이 制限되나 많은 分野에서 연구의 추세가 실험적 연구를 強調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방법의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實驗室 實驗(laboratory experiment)보다 現場實驗(field experiment)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4. 事例研究

사례연구는 하나의 社會的 單位(Social unit)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社會的 單位로는 한 個人, 家族, 集團, 機關, 社會 등이 다양하게 사용된다. 結果의 一般化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한 단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본 主題에 직접하게 활용될 수 있다. 한 家族의 5世代에 걸친 사진을 분석하여 服飾의 變化를 연구한 Wass⁹⁾의 博士學位論文과 같이 한 家庭을 단위로 하다 生活文化의 연구 可能性은 높다 하겠다.

IV. 研究를 위한 提言

이상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부터 「生活文化의 傳承과 創造」 研究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人間生態學的 接近

문화가 갖는 여러가지 속성중 하나가 文化의 有機性이다. 文化의 有機性이란 文化의 各 部分이

서로 有機的인 關係를 갖고 形成, 變化하게 되므로 文化의 어느 한 부분이 다른 부분들로부터 완전히 獨立의 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衣生活文化는 그 文化圈안에 있는 다른 여러 부분들, 예컨대, 美術, 建築, 價値觀, 美意識, 道德觀念, 宗教, 科學技術등과 상호 相關성을 갖고 형성되지 이들로부터 獨立의 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文化의 속성은 연구에 있어서 社會의 어느부분만 배어서 연구하는 것보다는 많은 環境變因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며, 이들간의 相互作用을 중요시하는 연구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必要性 때문에 Keiser⁷⁾는 體系的 接近(systems approach)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體系的 接近方法은 여러 環境變因은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 意思決定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現在 또는 장래의 문제를 綜合的으로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특히 未來의 상황을 예측하여 볼 때 모든 領域에서 變化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만을 배어서 장래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보다 體系的 接近方法에 의한 綜合的 판단이 유용하다.

2. 學際的 研究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理由에서 Green⁸⁾은 學際的 研究(inter disciplinary research)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학제적 연구는 연구의 幅(width)을 넓힐 수 있으나, 반면에 깊이(depth)를 상실할 가능성을 갖고 있기는 하나, 家族生活의 문제가 선명한 영역들로 나뉘어 설명되기 어려우므로 사실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학제적 접근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家政學은 과거, 現在의 見地에서 未來에 중심을 두고 人間의 全生涯를 통한 身體的, 心理的, 社會的 慾求에 대응하는 한 綜合學間(Synergistic science)이다.”¹⁾라는 지적과 같이 綜合科學의 특성을 갖는 家政學이 학문의 專門化로 인하여 상당히 細分化되었으므로 專門化된 학문의 깊이를 살린 學際的 研究가 필요하다.

3. 多變因 研究

인간의 行動이 한가지 要因에 의하여 설명되기 어려우므로 여러 變因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多變

因 研究(multi-variate method)의 필요성이 많은 학문분야에서 지적되고 있다.

生活文化의 문제도 소수의 변인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우므로 다변수 연구방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적합한 統計分析方法의 적용이 또한 필수적이다.

4. 地域間 協同研究

지역간 협동연구는 Cloud⁹⁾가 지적한 바와 같이 個人이 연구하기 힘든 연구를 가능하게 하며, 특히 地域의 문제를 보다 巨視的인 眼目을 가지고 비교하여 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研究者 個人뿐 아니라 研究機關, 一般人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生活文化의 문제는 특히 文化圈間 비교를 통하여 自文化의 특징과 이의 原因이 되는 環境要因의 규명이 용이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추진할 가치가 있다. 더욱이 韓國과 日本 같이 서로 類似性과 差異點을 동시에 갖는 두 文化圈間의 協同研究는 의의가 크다 하겠다.

5. 結果의 弘報

Green⁶⁾은 가정학 연구의 큰 취약점으로 연구의 결과가 이를 필요로 하는 最終 受惠者에게 보급되지 못하는 점을 들고 있다. “가정학 연구의 正當性은 家族과 個人의 生活의 質을 높이는 데 寄與함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⁷⁾”는 사실을 상기하여 볼 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생활문화의 傳承과 創造 研究에 있어서도 이의 결과가 最終 受惠者에게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教育活動과 地域社會 奉仕活動이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1. 文秀才, “未來 家政學研究의 可能性”, 1986年 春季學術大會, 大韓家政學會, 再引用, Wardsworth, K.A., and Keact, A.C., “Home Economics as Student Define It”, *Journal of Home Economics*, 68, pp.31~33. (1976).
2. Anspach, K.A., and Kwon, Y.H., “Western Dress Styles Adopted by Korean Wome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4), pp.235~242(1976).
3. Cloud, R.M., and Lawrence, F.C., “The Role of Cooperative Regional Research in Home Economic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4), pp.508~513(1984).
4. Compton, N.H., and Hall, O.A., *Foundations of Home Economics Research; A Human Ecology Approach*, Burgess Publishing Co., 1972.
5. Green, K.B., “Home Economics Research: A Macro View”,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4), pp.514~522(1984).
6. Jasper, C.R., and Roach-Higgins, M.E., “History of Costume: Theory and Instruction”,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4), pp.1~6(1987).
7. Keiser, M.B., “Critical Needs for Home Economics Research”,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4), pp.450~460 (1984).
8. McBreen, E.L., “Historical Research in Home Economics: A Model for Implementat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4), pp.540~549(1984).
9. Wass, B.M., *Yoruba Dress: A Systemic Case Study of Five Generations of Lagos Family*,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Microfilms, 1975, No. 76~5666.

1. 文秀才, “未來 家政學研究의 可能性”, 1986年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부교수 문 속 재

<목 차>	
I. 서 론	1. 가족생활
II. 생활문화 전승의 문제점과 창조의 필요성	2. 가정경제
III.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조를 위한 방향정립	IV.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문화를 어떤 특정한 사회에 생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생활양식이라고 규명할 때 생활문화는 한 사회 성원들의 집단경험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행위와 관념 및 그 결과로 나타난 기술과 인공물을 포함하는 행동원리로서 넓은 의미의 문화를 뜻한다.¹⁾

신체적인 조산아로 태어난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 행동의 유형과 방식은 문화에 의해서 조정되며 문화에 따라서 차이가 진다. 그러므로 각 문화마다 가정생활을 위한 특별히 강조되는 육구구조가 있으며 육구충족을 위한 고유의 방법과 가치척도가 있다. 따라서 가정생활의 범위와 내용, 목적, 책임 등은 개개의 문화마다 상이하게 요구되고 형성된다. 그러므로 가족 및 가족 개개인의 생활향상과 발전을 목적으로 연구하는 가정학은 그런 양육의 필요성은 보급자리 형성을 요구하고 그 형성을 위해 기술과 사회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런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이고 자연적인 곳이 가정이다. 그러나 가정은 사회적인 제도로서 그 가정이 존재하는 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문화는 목적

지향적으로 행동하는 인간에게 방향제시와 규범적 조정을 통해서 목적을 도달하도록 한다. 따라서 생존보존을 위한 초점이 사회회환경과 시대발전에 따라 재형성, 재검토, 재발전되어야 한다.

한국사회는 최근 근대화라는 이름 아래서 불과 몇 십년 동안에 급속한 기술경제의 발전을 해왔고 이런 현상은 결국 다른 사회문화의 발전과 균형을 이루지 못함으로써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전통적 유교적 가치관과 오늘날의 민주적 평등사상 능력주의 가치관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병존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 간의 심리적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그들의 육구체제와 가치체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경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 부족으로 가정의 “목적—자원배분”의 상관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오늘날 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격심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까지 지내왔던 생활을 그 낭 뒤풀이하는 것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어있다. 과학이론도 생활사상 또는 생활수단 등의 개별상황에 대응할 뿐 현대의 생활문제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현대사회는 가족이 그들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또는 기술적 원조를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활문화가 성장 발달해 온 역사적 제기와 거기에 작용한 내적 외적 제 요인들을 규명하고, 현상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여 현재와 미래의 생활에 알맞는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사회에 잘 적응하는 나아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가족 및 개개인의 행동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가 조속히 일반 가정에 전달되어 그것이 실천의 지침질이 되어 실생활에 변화를 줌으로써 가족생활의 향상과 더불어 사회의 발전과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구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정학이 실천과학으로써 지역사회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연구성과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II. 생활문화 전승의 문제점과 창조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과거로부터 현대까지 축적되어진 문화양식으로써 현재의 사회환경속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생활문화를 전통이라고 규정할 때 전통과 생활문화의 전승은 동일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전통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한 사회의 세대적 전달과 계승이라는 시간적 역사적 지속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번 형성된 전통생활문화는 자체의 지속력이 내재되어 있어서 그 바탕이 된 사회가 변천 되어도 그대로 존속을 고집하는 성격이 있다.²⁾ 그렇기 때문에 전통생활문화는 항상 재평가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되고 변경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재창조되어야 한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사회는 급속한 속도로 산업화 도시화 대중화 등의 사회변동을 경험하였고 그와같은 사회변화를 추진해 나아가갈 사회세력의 형성도 미흡한 상태에서 산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화가 진행되어져 왔다.

이와같은 사회적 조건은 한국의 근대화가 일부의 상부계층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지고 경제우선의 공업화를 선택하게 하고 자주적 발전전략보다는 서구의 발전모형을 모방하는 형태의 근대화가 추

진되어졌으며 적지않은 발전과 근대화의 성과를 거두었다. 반면에 문화영역에서는 적합성(relevancy), 정체성(identity), 통합성(integro)의 문제 등을 나타내고 있다.³⁾ 즉 급속한 사회변동은 전통문화의 단절현상을 초래하였다. 사회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전통문화는 기능의 면에서 그것의 효과적인 활동여하에 따라서는 일면 새로운 것과 잘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계승 발전하여 변화의 근간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새로운 것과 모순 대립되어 점차적인 대치 끝에 완전히 단절될 수도 있다. 실제로 현재 우리 문화의 여러 측면에도 아주 오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오는 전통생활문화의 특질도 있고 급격한 사회변동으로 단절된 것도 있으며 또한 새로이 형성되어 발전되거나 또는 현재 단절 직전에 있는 전통생활문화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통적 생활문화는 현대의 가정생활 속에 얼마만큼 전승되고 존재하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거부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는 작업은 변화하는 현실에 새롭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는 실천적 정책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오늘날 우리가 창조하는 새로운 생활문화는 미래에 우리 후손들의 전통문화가 된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 생활문화가 나아가갈 방향을 정립하는 작업은 시급을 요하는 과제이다.

III. 새로운 생활문화의 창조를 위한 방향정립

1. 가족생활

우리의 전통사회는 농경사회이다. 그러므로 가족원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써 간주되었고 가정은 생산의 장소이며 소비의 장소였다. 즉 가정내에서 필요한 일체의 재화가 생산되고 그 생산한 범주에서 가정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급자족적 가정이었다. 가정이 이와같이 경제적 단위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정에 소속 되어야 하며 사회적 단위인 가족, 경제적 단위인 가족을 개인 위에 두는 가족주의 가치관이 가정생

활을 지배하였다.

김태진은 한국인의 가치관의 일반적 특색을 논하면서 가족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고 내지 행동의 경향을 그 첫번째 특성으로 들고 있는데 그는 가족주의를 가족에 대한 애착내지 관심이 다른 의욕과 동기를 압도하고 행동의 주도권을 잡는 생활태도로 규정하였다.⁵⁾

근대화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존속되어 오는 가족주의는 강력한 가부장적 직계가족제를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가족제도에서는 세대관계는 물론이고 부부관계도 상하가 뚜렷한 위계질서 위에 성립된 종속관계이며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행동원리였다. 유교적인 윤리관에 바탕을 둔 가족가치관에서 효는 절대적 가치로 인식되어 다른 모든 가치는 효를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 간주함으로써 가족공동체적 인륜관계를 생활문화의 핵심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근대화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생활은 크게 변화하였다. 가족은 형태면에서 핵가족화, 규모면에서는 소가족화, 가족주기면에서는 가족형성기의 지연화 등 산업화 추세에 맞추어 변화하였으나 가족구조의 핵심적인 부분은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가족에서는 여전히 부자관계가 중요시되며 형태상으로도 핵가족이지 실제로는 직계부계가족 원리를 따르고 있다. 이러한 직계부계가족 원리는 남아선호현상과 밀착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가족구조가 형태, 규모, 가족주기면에서 산업화 유형에 근접해 있으면서도 내용적으로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즉 현대 한국의 가족이 구조적으로는 핵가족화되었으면서도 의식적 가능성 측면에서는 직계가족원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여기서 오는 모순, 갈등이 많음을 보여준다.⁶⁾

전통적 가족주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변형된 태도로 그 역기능을 나타내고 있다.⁷⁾ 즉 가족형태의 핵가족화는 핵가족적 가족주의를 이념으로써 배타성을 강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에 전념함으로써 물질주의적이며 공리적 성격을 강하게 띄우고 있다.

오늘날까지 가족주의가 이렇게 변모된 형태로

지속내지 강화된 주요 원인은 경제우선의 근대화 과정에서 야기되는 무질서와 불안 그리고 직장가정의 분리이다. 급격히 변동하는 현대 속에서 가족주의는 불안한 가족의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줄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에서의 가장의 실질적 부재를 아내의 헌신적 노력으로 메꾸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이러한 가족주의의 체제유지적 순기능은 체제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역기능적이다.⁸⁾ 핵가족적 가족주의는 비혈연과의 협동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가족이 사회도피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가족구성원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사회변혁의 차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하는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가족이 사회변화의 매개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은 자율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즉 전통적 가족주의의 핵심인 혈연주의와 가부장적 질서관을 벗어나 개개인 스스로 가족의 구성을 선택함으로써 다양한 가족형태가 가능하며 가족성원간의 관계가 평등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이 우리의 생존에 있어 절대적 단위이고 생활의 핵심이라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고려했 때 자율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한 가족주의는 사회의 중요가치로 존중될 것이다.

2. 가정경제

오늘의 한국사회는 산업화, 공업화로 인하여 가정생활을 위한 자원의 조달이 가정내부의 생산에 의한 자급자족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시장경제의 발달로 시장에서 공급되는 재화와 용역은 날로 다양화, 대량화되며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으며 상품은 한층 복잡해져 단단하거나 수리하기에도 어려워져서 일상적인 생활품마저도 생활경험이나 상식만으로 선택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가정생활의 참다운 목표를 새로이 인식하고 이 목표를 달성키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다수의 가정들이 전통적인 경

제의식 속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한국인의 경제행동은 바로 외형상으로는 근대 산업사회적, 생활유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전통적 행동규범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는 역사적으로 물질이 매우 궁핍한 가운데서 영위되어 왔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경제생활은 어떻게 부족한 생활물자를 절약하여 최대의 효용을 얻도록 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적인 소비생활의 유형은 생활물자가 다시 궁핍해질 수 있으므로 있을 때에 많이 사두어야 한다는 사재기 행동과 한번 사기도 어려운데 이왕이면 오래가고 품질좋은 것을 사야한다는 사치적 소비행동 등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행동은 현대 자유시장경제 체제속에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재화와 용역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자급자족시대 내지는 경제가 궁핍했던 시대의 경제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경제의식은 타인을 추종하여 유행적 소비를 하는 자원선택의 획일성, 자신의 내실적 상태보다는 타인의 자신에 대한 피상적 평가가 우선하는 가시성, 스스로의 구상이나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서 동질적인 재화용역을 선택하는 동질성,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는데에 단기적인 배려에만 집착하는 급진성 등을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경제의식으로 인하여 자원의 획득과 소비에 있어 다음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을 나타낸다. 즉 재화·용역의 효용의 대차성을 매우 협소하게 하고 재화·용역에서 얻는 효용은 개인 간에 동질적이므로 이로 인해 보다 높거나 다른 효용이 창조될 가능성이 줄어 들고 효용극대화를 찾으려는 생각이 희박하고 소비적 효용가치 또는 금전적 비용은 발생시점에 따라서 있는 것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대차적 소비방안의 존재로 기회비용의 발생에 대하여 무감각하다. 뿐만 아니라 가정경제와 기업경제를 혼동함으로써 즉 가정구성원의 삶의 터전을 능률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가정경제인데 “돈을 번다”라는 기업경제로 간주하고 모든 소득을 저축하던 투기에 투하하는 사례까지 빚어 결국은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파괴하는 경우

가 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적 자원관리의 의식이 현대적 경제의식 즉 다양성, 내실성, 점진성, 전문성을 자원관리의식으로 변모하여야 한다. 국민총생산 중 민간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70%에 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합리적 자원관리가 가정의 안정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IV. 결 론

이상 제시한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는 짧은 기간동안 전통적인 사회체제에서 현대적인 산업화체제로 급격히 변화해 왔으며 이러한 사회변화는 가족으로 하여금 변화에 따른 갈등과 문제들을 심각하게 겪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발전의 한 측면으로서 수반되는 이러한 변화와 갈등을 새로운 시각에서 수용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이상적 가정을 발견해야 한다.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부족한 가정자원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자원을 조직하고 준비하는 곳이다. 우리는 이러한 가정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문화를 형성한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어느 한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고 가정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즉 이상적 가정이란 가정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형태이다. 이러한 이상적가정은 개개인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자신에게 합당한 생활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미래의 가정은 오늘날처럼 고유형에서 벗어나서 산업사회, 다원화사회에 맞게 개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생활이 용인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성역할에 대한 편견적인 사회화과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구성원의 관계가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 경제적 기회, 법적 보장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선적으로 근본적인 차원에서 가정이란 과연 무엇이나, 우리 인간들이 정말 꼭 필연적으로 가정생활을 해야만 할 것이냐, 한다면 어떤 방법

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가정의 본질과 이념 당위성에 대한 논의가 우리 주위의 여러 곳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이를 바탕으로 가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의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문제가 발생하는데는 사회의 환경 등 구조적인 측면과 개인이 특수한 환경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 개인적인 측면 모두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개인과 사회는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의 변화를 느끼고 비판하고 수용하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가족구성원들이 합리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민주적인 가정교육과 학교교육 사회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교육실태를 보면 여성들은 중고등학교에서 가정, 가사교과목을 통해서, 그리고 대학에서는 가정학개론, 현대사회와 가정, 여성학, 가족과 사회 등의 교양과목을 통해서 또한사회에서는 주부대학, 결혼예비학교 등의 평생교육을 통해서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 필요한 제반 문제를 생각하고 그 방법을 습득하는 반면 남성들은 가정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가정생활을 위한 역할합의에 있어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가정은 개개인의 나아가 사회의 생활문화 창조의 장소이므로 높은 생활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가정생활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교육은 어느 누구에게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생애교육적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바람직한 가정생활이란 주어진 많은 가능성 속에서 가정구성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추구한 목적에 알맞은 합리적인 방법과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변천하는 환경을 잘 이해하고 가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며 이런 지식과 능력은 전통이나 답습,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가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교육은 곧 지역사회 발전에 위한 기반

이 된다. 지역사회의 발전은 관습의 변화를 통하여 그 지역사회 사회경제적 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체계적 노력으로써 그 지역사회 사람들의 새로운 가치관과 신념, 향상된 자아의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발전은 궁극적으로는 집단적인 자아의식의 혁신으로서, 새로운 사회질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치, 신념, 관습을 발전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한상복,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p.292.
2. 여석기, "전통문화와 외래문화", 정신문화, 정신문화연구원, (11), 1981, p.9.
3. 임희섭, "한국문화의 변화와 전망", 「한국사회론」, 민음사, 1980, p.117.
4. 한상복, "한국인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1983, p.293.
5. 김태길, 「한국인의 가치관 연구」, 서울: 문음사, 1982, pp.164~165.
6. 조 은, "산업사회와 신가부장제",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 한국사회학회편, 현대사회연구소, 1983, pp.181~200.
7. 조혜정, "가족윤리—공리적 가족집단주의와 도덕적 개인주의",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1986, pp.163~182.
8. 조혜정, 전제서, pp.171~177.
9. 서남원, "우리 가계의 소비의식 구조", 80년대의 내자·동원에 관한 심포지움,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3, pp.32~46.
10. 김광역, "제 2 분과 토론", 「현대사회와 여성」, 서울: 아산사회복지재단, 1987, p.179.
11. 김영찬, 생활, 문화, 교육, 교육과학사, 1983, p.171.
12. 최신덕, "현대사회의 가족",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1986, pp.41~54.
13. 최재석, "전통가족의 특성", 「현대사회와 가족」, 서울: 아산사회복지 사업재단, 1986, pp.28~40.

14. 고영복, "한국가족문화의 변용과정", 「아세아 연구」, 26(1967), pp.319~336.
15. 이광규, 「한국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981.
16. 김한초 외 3인, 한국가족의 표준모형개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17. Liuton, R.; Gesellschaft, Kultur und Individium, Tübingen, 1974.
18. Mühlmann, W.E.; Umriss und Probleme einer Kulturanthropologie, Berlin, 1966.
19. Rudolph, W.; Der Kulturelle Relativismus, Berlin, 1968.
20. Claessens, D.; Familie und Wertsystem, Berlin, 1962.
21. Goode, J.; Soziologie der Familie, München, 1967.
22. Schweitzer, R.; Überlebt der Haushalt das Jahr 2000; München, 1975.
23. Hausen, K.; "Familie als gegenstand historischer Sozialwissenschaft" In: Geschichte und Gesellschaft Ja. Heft. 2/3 1975, S.171~209.

I. 教育分科

I-1 韓國의 住居文化的 要素의 變化와 住敎育의 變化

延世大學校
尹 貞 淑

오랜 역사적 문화 전통을 배경으로 한 한국의 사회문화는 이 수십년간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으며, 주거와 환경을 둘러싼 한국인의 생활영역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한국의 외래 지향적 근대화로 한국인의 전통적 가치관이 혼동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의 가치관은 더 없이 불안정하게 되고 오늘날의 주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주체성의 상실·저하가 현저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사회·문화적 현실속에서 주거문화를 책임질 개인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생활 및 주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을 얻고, 그것을 실현해 가는 주체자로서의 기초적인 능력은 주교육을 통하여 함양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 문화적 변용 과정에 있어서 주교육이 요구되는 배경을 검토함으로써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여 우리의 전통적 생활양식에 맞는 주거 문화를 형성하여야 한다.

I-2 韓國食生活文化的 傳統과 繼承

漢陽大學校
李 孝 枝
延世大學校
孫 敬 喜

한 민족의 식품소비구조와 식생활양식은 그 민족문화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또한 민족의 식생활문화는 그 민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풍습과 각 가정의 기호와 전통에 따라 복잡한 요인을 지니고 형성되어 전승되고 변화하기도 한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식량생산량의 증대·식품공업의 발달·영양에 대한 인식변화·생활수준의 향상·외국과의 문화교류등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식생활양식에서 이탈하는 계기가 되었고, 타문화권의 식생활양식을 모방하여 수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의 전통식생활문화속에서 외래문화를 어느 정도까지 수용하여 정통성을 확립·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리 식생활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보고 식생활문화의 정통성 확립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전통음식을 과학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의 풍토와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전통음식을 개발하여 식생활문화의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하겠다고 믿는다.

I-3 衣生活文化的 過去·現在·未來

仁荷大學校
朴 贊 富

文化란 한 社會成員들의 生活樣式이며, 이는 그 民族의 歷史的으로 이룩된 산물이다. 또한 이것은 주어진 條件下에서 試行錯誤를 거듭하면서 이루어진 한 民族의 삶의 지혜이다. 服飾은 人間의 生活樣式的 하나로서 生活文化的 重要한 一部를 형성하고 그 時代文化的 無形의 精神的, 社會的인 面을 反映한다. 한 社會의 傳統이란 長期間에 걸쳐 內的要素와 外生·外來的인 것들이 屢히 相互作用하면서 그 社會成員들이 채용,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립되고 傳承된다. 따라서 어떤 社會건 固有한 傳統의 要素란 거의 없다. 나라와 나라, 文化와 文化는 서로 끌고 끌리면서 文化의 磁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服飾도 內的 및 外生·外來的인 文化的 類型이 屢히 장구한 세월 지속되는

동안 독특한 韓國服飾文化의 根幹을 이루어왔다. 服飾文化의 核心은 服飾이 存在하게 되는 內在의 原理, 힘, 價值, 精神 등이며 바로 이것이 傳承되는 것이다. 새로운 變化는 傳統으로서 조정해야 한다. 즉 낡은 것과 새것중 어느 極端에 집착하기 보다도 陰·陽의 相互作用속에서 創造되어야 할 것이다. 服飾에 있어서도 傳統文化가 새로운 文化, 外生文化와의 調和로 個性化 될 때 새로운 양식, 새로운 創造가 이루어질 수 있다. 未來의 韓國의 衣生活文化는 尖端技術面에서는 世界的 추세에 발맞춘다 해도, 人間性 回復의 측면을 고려한 「하이테크(High-Tech)」=「하이터치(High Touch)」의 平衡反應의 추세에 따른 多樣하고, 獨創的, 個性적인 韓國의 裝飾美, 기능미가 가미된 韓國文化圈만의 독특한양상이 나타나야 할 것이며 또 나타나도록 衣類·패션產業, 服飾文化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4 韓國傳統祭禮文化의 現代的 照明

誠信女子大學校
李 吉 均

儒敎的 傳統社會의 禮祭文化, 특히 祭禮文化가 韓國生活文化에 미친 影響은 자못 甚大한다. 實踐倫理로서의 儒敎의 敎理는 宗教의 次元으로까지 擴大昇華되고 家禮의 冠·婚·喪·祭의 四禮中 특히 祭禮는 血統과 家族의 上下의 垂直的 水平的關係를 祖上神과의 對話와 崇敬으로서 現實的으로, 그리고 宗教的으로 儀禮化되고 儀式化되어 祖上和 父母에 「報本反始」하므로써 家族의 共同體意識과 나아가 社會秩序維持의 社會的規範으로서의 核心을 形成하여 왔다. 그러나 外來異質文化와의 統合·喪失에서 오는 葛藤과 軋轢, 그리고 6.25戰亂으로 因한 價值觀의 倒錯, 또한 急速度로 進展된 近代化過程에서 惹起되는 都市化·産業化·機械化·核家族化 등으로 從來의 家庭生活·家族制度의 崩壞는 勿論 祭禮文化로 이룩되어 온 醇風良俗과 共同體意識에 龜裂이 생기고 過度期的 混迷와 精神의 不安狀態는 加速化되고 있는 趨勢에 있다. 따라서 産業化와 都市化·機械化에서 招來된 人間疎外現象과 核家族化에서 緣由되는 極度の 個人主義의 傾向으로 분

散되고 對立되는 家庭과 家族共同體意識을 振作하므로써 轉換期時代에 副應하는 禮祭文化와 祭禮文化의 現代的 再照明과 아울러 從來의 形式과 儀式爲主의 祭禮에서 實用的이고 現代感覺에 立覺한 劃期的 轉換을 圖謀하므로써 現代社會의 病理現象을 治癒하는 精神의 支柱로서 家族을 中心으로 한 家庭에의 再結集을 試圖하는 方案과 共同體意識이 涵養을 하는데 意義가 있음을 提示하고자 한다.

II. 研究分科

II-1 설농탕 調理法의 標準化를 爲한 調理科學的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安 明 秀
中央大學校
尹 瑞 石
林 姬 洙

설농탕(Sulnong Soup Stock)은 소의 四骨과 기타 骨에나 牛足, 牛頭, 양지 머리, 사태육, 內臟部位 등을 섞어서 長時間 끓인 국요리의 一種이다.

本 研究에서는 傳來式 설농탕의 材料(四骨, 양지머리, 牛頭, 牛足, 무릎도가니, 牛舌, 유통, 양)를 基準으로 調理時間(6, 12, 18時間)과 添加方法을 달리한 것, 現在 市販설농탕의 調理法(양지머리, 牛頭)으로 製造한 것, 그리고 現市販 설농탕 材料에 牛頭, 牛足, 무릎도가니를 各各 더 添加한 것들의 營養成分을 比較하고 適當한 調理法을 檢討한 結果 다음과 같이 要約하였다.

傳來式 설농탕은 加熱時間에 比例하여 蛋白質, 脂質, 灰分, 遊離 Amino Acids, 5'-IMP, Cholesterol, Ca, P, Fe의 溶出量은 增加하였으나 처음부터 모든 材料를 같이 넣고 끓이면 5'-IMP 량은 減少되었다.

市販설농탕은 傳來式보다 營養素含量은 적었으나 牛足, 牛頭, 무릎도가니를 加해주므로써 補充되었으며 其中 牛頭를 加한 때가 가장 效果가 좋았다.

설농탕 製造時 가장 適當한 加熱調理時間은 12

~18時間이었으며 部位別 材料의 特性을 살려 段階的으로 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II-2 韓國과 日本의 傳統的 婚姻儀禮 比較

啓明大學校
朴 惠 仁

韓國과 日本의 婚姻慣行을 그 歷史的 變遷과 民俗面에서 考察하여 兩國의 家庭生活의 文化史的 關連性을 檢討해보고자 한다.

韓國에서는 20世紀初까지 新郎이 女家에 가서 婚姻式을 行하고, 結婚初에 妻家에 머물면서 本家を 往來하는 婿留婦家婚(男歸女家婚)이 普遍的이었다. 이와 類似한 日本의 聲人婚(一時的妻訪婚)의 性格을 日本家族의 變化次元에서 分析하고, 婿留婦家婚과의 共通點과 相異點을 究明한다.

그리고 中國에서 傳來된 朱子家禮의 影響과 家族의 出系問題를 婚姻과 關聯시켜 論한다.

또한 北方文化要素와 南方文化要素에 對한 兩國의 文化史的 關連性이 歷史的·社會的脈絡에서 새롭게 照明되어야 할 問題임을 提起한다.

II-3 김치 熟成中 理化學的 特性과 Vitamin 量의 變化

新丘專門大學
李 慧 溶

계절별로 기본 재료로 담근 Control 김치를 비롯하여 3차에 걸쳐 보존료(K-Sorbate, K-Sorbate+acetic acid), 부재료(갓, 무우), 양념(마늘, 고춧가루), 짭 갈류(새우젓, 멸치젓), 그리고 Ca 급원(멸치분말, Ca-Lactate, Ca-Carbonate, Ca-Carbonate+acetic acid)등을 첨가하여 여러종류의 김치를 제조하고, 유산균의 예비발효를 위해 16~24시간 실온에서 숙성시킨후, 저장온도를 4°C와 25°C로 구분하여 전자는 1주마다 후자는 1일간격으로 김치숙성중 여러성분의 경시적변화를 살펴보았다. 김치의 일반적인 숙성도 기준인 pH와 중산도가 저장온도와 저장시기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고, 질

산염, 아질산염, Vitamin C, Thiamin, Riboflavin, β -Carotene 함량등의 실험을 수행하여 제조 김치의 숙성중 여러성분의 이화학적 특성과 Vitamin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III. 地域 活動 分科

III-1 住宅建築의 側面에서 본 生活文化傳承의 問題點

全州又石大學
郭 仁 淑

본 연구는 생활문화의 광범위한 분야중에서 문화적 특성이 인간에 의해 구체화되어진 물리적 환경인 주택이라는 건축물을 살펴보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일차적으로, 전통주택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문화적인 한 측면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현대의 생활속에서 어떻게 전승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다루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새로운 주택에서는 과거의 전통주택에서 두드러지게 들어나고 있는 자연과 융화하고자 하는 자연관이나 기능의 장식화를 가능하게 했던 뛰어난 미의식(美意識)은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전통의 계승이라는 명제하에 많은 건축물들이 시도되고 있으나, 진정한 의미의 생활문화의 전승이나 창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 예로서 전주시를 중심으로 시도되었던 전통의 계승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는 단순한 전통주택의 모방이나 외형적인 형태의 전승이 아니라, 그 기저에 깔려있는 의식과 가치관, 철학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인 해석으로서 표현되어야겠다.

III-2 韓國民家形態에 나타난 生活文化 —熱에너지 生活文化篇—

延世大學校
尹 福 子

韓國의 建築에서 宮闕, 公共建築, 그리고 特殊

上流層의 住宅을 除外하고 一般人이 살았을 家屋을 民家라고 定義하였을 때, 韓國民族의 生活歷史 속에서 熱에너지를 어떻게 管理하였나를 整理한다. 韓國의 自然環境은 大陸性氣候의 漸移性地帶에 屬해 있다. 따라서 긴 겨울과 高溫多濕한 여름이 있어 이를 爲하여 韓國의 民家は 北方的인 閉鎖性과 南方的인 開放性을 나타내는 住宅型과 溫突과 마루가 共存하는 住宅構造를 갖고 있다. 이런 民家は 現代의 科學的 工法이나 技術의 利用보다도 自然環境속에서 自然과 共存하는 暖·冷房方式에 對한 熱에너지를 智慧롭게 管理해왔다. 이것에 對한 熱에너지 生活文化는 다음과 같이 찾아볼 수 있다.

1. 宅地選擇: 風水地理說을 適用해서 背山地型을 擇한 點.

2. 住宅構造: 1) 地域의 氣候條件에 따라 閉鎖·開放型으로 一字, ㄷ字, ㄱ字, 口字型으로 바람을 調節 2) 溫突시스템으로 輻射熱 利用과 暖房과 炊事를 兼한 住宅構造 3) 여름을 爲한 大廳마루, 겨울을 위한 덧문.

3. 材料選擇: 保溫과 絕緣效果를 爲해 흙벽돌을 사용한 壁, 바닥, 天井, 벗집으로 이은 지붕, 장마철의 濕氣와 겨울철의 乾燥한 室內空氣를 흙벽돌로 조절.

4. 日常生活: 겨울에는 화롯불과 보료, 屏風使用, 여름에는 돛자리, 베蓆이 불, 밭使用.

Ⅲ-3 未來의 高齡化社會에서의 家族關係

誠信女子大學校
金 兌 玄

生活文化는 家族內世代間의 結束을 통해 傳承되고 創造되어 나간다. 過去傳統社會에서는 老人이 生活文化의 傳承者로서의 役割을 遂行하여 왔으나 產業革命 以後 都市化가 血緣關係의 基盤을 侵害하면서 老年層은 家族과 孤立되어가고 있다고 主張되어 왔다. 그러나 最近 家族老年學者들은 이러한 學說에 批判을 加하면서 老年期의 家族關係는 여전히 強하게 持續되고 있다는 點을 體系의인

分析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本考는 韓國社會에 있어서 老年期의 家族關係의 重要性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高齡化 社會에서도 未來의 家族이 새로운 文化를 創出하고 創造的인 中間集團으로서 社會變革에 肯定的인 寄與를 할 수 있도록 한다.

(1) 生活類型: 韓國에서 3世代 家口는 1966年の 24.0%에서, 1980년에는 16.7%로 減少하였다 (National Survey, 1980). 그러나 農村에서는 全體 家口의 22.0%에 達하고 있어 아직 韓國은 다른 文化圈보다는 3世代家口가 많이 存在하고 있는 社會라고 볼 수 있다. 老人들이 子女와 함께 居住하고 있는 類型을보면 過去보다는 減少하였지만 아직도 47.3%의 老人들이 長男夫婦와 함께 居住하는 傳統的 直系家族形態를 띄고 있다(金兌玄, 1981). 老人들이 願하는 生活類型을 보면(Korea Gallup polls, 1984) 83.4%가 '全體家族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應答하여 西歐老人들이 選好하는 居住形態인 'Intimacy at a distance'는 韓國老人의 경우 9.9%에 不過하다.

(2) 結婚關係: 壽命期待에 있어서 性差異에도 不拘하고(1985年, 男子: 67.9세, 女子: 71.3세), 家族週期の 變化로 女性들은 配偶者와 함께 生存하는 期間이 過去보다 더 길어졌다. 또한 末子를 結婚시킨 뒤 死亡할 때까지의 빈 둥우리期(empty-nest)가 길어짐에 따라 過去보다 老年期의 夫婦關係가 더욱 重要하다.

(3) 世代間의 關係: 女性의 平均壽命이 길어짐에 따라 各其 未亡人이 된 老年期 初期의 딸과 老年期 末期의 母가 이루는 家族이 增加하고 있어, 父子關係를 重要하게 여기던 家父長制 社會에서 母女關係가 차츰 重要하게 擡頭되고 있다. 또한 祖父母 生存時 태어나는 孫子女의 比率이 增加하고 있으며 祖父母 類型이 formal type에서 fun-seeker type으로 變化되고 있고 친척間의 交流가 여전히 빈번하다.

(4) 앞으로의 方向: 老人과 家族의 持續性이 崩壞되지 않고 生活文化가 傳承되기 爲하여 닥아온 高齡化 社會에서는 다음과 같은 研究가 繼續되어야 한다. 즉 中年期 子女에 對한 研究, 家族扶養의 分擔化, 全生涯發達側面에서 孝와 愛着에 對한

研究, 老年期에 다시 重要해지는 兄弟姊妹關係研究 및 4世代 以上 家族에 對한 研究 等이다.

Ⅲ-4 韓國 家庭의 經濟, 生活, 化文 ——그 傳承과 創造——

忠南大學校
金 純 美

인간은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문화를 형성한다. 자연환경과의 공존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화는 인간, 자연, 그리고 환경과의 상호관련을 통한 종합체가 되어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행동 또는 생활양식으로서 전해지는 것이다.

문화전반의 토대가 되는 생활의 문화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목표에 근거하여 변화하고 발전한다.

역사적 경험을 통해 누적되는 생활문화는 그 역사적 계기와 내적,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공통된 보편적 특성과 전통적인 개별적 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특성은 생활문화를 존중·보존하거나 제외하는 선택, 그리고 혁신을 통하여 전승되고 창조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문화의 전승과 창조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화의 적합성(relevancy), 정체성(identity) 그리고 통합성(integration)을 기준으로 고찰하고자 한다.